

News

우리금융, 내부등급법 승인 획득...증권·보험 인수 본격화하나

이데일리

우리금융그룹, 2일 기준 금감원으로부터 내부등급법 최종 승인 획득... 지난 6월 중소기업 및 가계부문 승인에 이어 이번에는 외감기업과 카드 부문 모형까지 포함 이번 승인으로 BIS비율 약 1.3%p 상승할 것으로 예상... 다른 금융지주들이 비은행 부문 수익 확대를 하고 있는 만큼 우리금융지주도 사업다각화할 것으로 예상

기준금리 인상 효과 특출...은행 정기예금 10월에만 20조 증가

경향신문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NH농협 등 5대 은행의 수신 잔액 총 1,751조 362억원으로 전월대비 20조 4,583억원 증가... 이 중 정기예금 잔액은 652조 8,753억원 요구불예금 잔액은 681조 6,197억원으로 오히려 감소...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정기예금으로 수요 몰린 것으로 분석

'고가 전세'도 전세대출 막는다...대출 잔액 1조원

머니투데이

서울보증보험, 고가전세 대출에 대해 전세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 보증회사가 보증조건을 바꾸면 전세대출 한도나 가능 여부 등이 달라짐
지난 26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의 영향... 전세대출 제한되는 기준은 전셋값 9억원 및 15억원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아...

정부 대출규제가 인터넷은행 호실적 이끌었네

매일경제

케이뱅크, 3분기 168억원 잠정 당기순이익 기록... 2분기 첫 흑자 이후 큰 폭으로 확대... 카카오뱅크는 3분기 당기순이익 520억 기록
대출 수요 증가와 금리 인상이라는 쌍두마차가 호실적 견인... 양 행 모두 고객수가 지난해 말 대비 크게 증가... 특히 케이뱅크는 가상화폐 열풍으로 계좌 개설 수 증가

간편한 '토스 인증', DGB생명도 뚫었다... 카카오페이 바짝 추격

머니S

비바리퍼블리카, DGB생명에 토스 인증서 구축... 지난 7월 교보생명 구축 3개월 만... 토스인증서 도입한 국내 보험사 총 8곳으로 카카오페이 12곳과 격차 좁혀...
보험사들, 빅테크 인증서를 통해 온라인 보험 판매 확대 계획... 앱에서 지문인식, 핀 번호 입력으로 본인 인증 간편하게 수행 가능

'신한지주의 신호탄?' 내년도 보험업계 지각변동 오나

아시아투데이

금융당국의 보험사 자본 규제 꾸준한 강화로 외국계 자본들이 한국을 속속 떠나며 내년부터 보험사 인수합병 매물이 다량으로 쏟아질 수 있다는 예상 제기
동양생명, ABL생명, AXA손보 등이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금융지주사의 비은행 수익 기여도를 높이는 역할 가능성

토스증권, 해외주식 서비스 시동... '서학개미' 마음 얻을까

머니S

토스증권, 해외주식거래 서비스 출시 본격화... 22일까지 사전신청 접수 중... 사전신청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외주식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오픈 예정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는 내년 1분기 중 제공할 계획... 서학 개인투자자들이 증가하며 해외 주식계좌 신고자가 지난해 비해 61% 증가

KTBT투자증권, 자회사 VC 상장...수익·성장 다 잡는다

데일리안

KTBT투자증권의 VC자회사 KTB네트워크가 연내 상장 목표로 IPO에 도전... 유진저축은행 인수 마무리로 발판 마련
28일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승인... 예정 공모가 범위 5,800~7,200원, 공모 규모 1,440~1,600억 예상... KTB투자증권이 지분 65% 보유로 최대주주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